

## 退溪도덕철학의 근본문제\*\*

李 京 植\*

### • 目 次 •

I. 序 言	2. 퇴계의 경설
II. 퇴계의 人間像과 修己의 태도	IV. 퇴계의 인간수양론
1. 퇴계의 인간상	1. 퇴계의 存養省察論
2. 퇴계의 수기적 태도	2. 퇴계의 眞知實踐論
III. 퇴계의 仁說과 敬說	V. 結 語
1. 퇴계의 인설	

### I. 序 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사는 한 민족의 사상적 주체성이란 그 민족의 창조적 주인의식이다. 주체성을 망각한 빈 마음은 이리 쫓고 저리 달리어 공허한 모방에 거친 형체만 남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주체성 없는 사대주의의 폐단이다. 한 민족의 주체적 지혜는 그 민족의 전통사상의 근본문제에서 찾는 것이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풍요로운 전통사상의 광야를 우리의 사고와 노력으로 한결 비옥하게 하여야 한다. 바로 우리의 유구한 전통의 지성을 땀흘려 새롭게 경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눈부신 창조적 정신을 가꾸고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퇴계의 인간수양론이야 말로 모름지기 현대

\* 전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대구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9호(1991) 게재논문

한국사회에 새로 부흥시켜야 할 위대한 사상유산이라 하겠다.

阿部吉雄에 의하면 『이퇴계는 세계가 동양에서 구하고 있는 교육정신 사상을 증흥한 철인으로, 일본의 江戸時代 초기부터 많은 일본 학자들에게 尊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술도 주요한 것은 일찍부터 거의 출판되었다. 개중에서 <自省錄>과 같이 한국에서는 亡佚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본에서 널리 애독되고 보급된 것도 있다』<sup>1)</sup>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퇴계가 많은 일본 학자들에게 크게 존신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 위의 일본 학자들은 그것을 퇴계가 인간탐구, 인간수양을 중히 여겼던 실천적인 도덕철학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러면 퇴계 인간수양론의 요점은 무엇인가? 人心 속에 있는 본래적 善의 것을 닦으면 그것이 곧, 天理之道로서 天命之事와 일체가 되고, 이를 <擴而充之>하면 마침내 성현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범인은 그 심신에 기품의 혼탁함이 있어서 천리의 본성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천리가 먼 것처럼 보일 뿐이요 천명의 事를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다. 이에 만인은 마땅히 窮理와 存養省察을 통해서 혼탁한 기품을 바로잡고 純善無惡한 천리의 본성을 회복해야 할 것은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 자아의 주체적 성찰에 의한 도덕적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眞知의 탐구와 尊德性을 돈독히 하여 도덕적 인간형성을 역설한 점에 있다. 그리고 퇴계는 도덕률을 행위의 궁극적 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天理와 人欲, 道義와 私利, 自由와 心然의 이원성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퇴계의 지론은 끝없는 도덕적 노력의 완성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이원성의 고차적인 통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가 통일의 최고원리를 확신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에서보다 전적으로 도덕적 이유에서이다. 그러기에 그의 윤리관의 목표는 인간도덕심의 계발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도덕적인 세계질서의 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 도덕철학의 근본문제를 몇 가지 摘記하면 ① 수양을 통한 본래

1) 阿部吉雄(編),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3, p.6.

적 인격의 함양으로써 비인간화로부터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② 성선설에 입각하여 인간의 기질에 떨어진 본성을 확충하여 氣質改造를 통한 復性을 지향케 하는 일이며 ③ 사고와 지식과 행동의 互進的 통일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의 고양과 존덕성의 실천적 생활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퇴계철학의 본심은 존재론보다는 인성론에, 인성론보다는 인간수양론에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비하여 한국인의 도덕적 정신의 계발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여러 면에서 비인간화의 도덕적 퇴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번영 못지 않게 도덕적 인간회복이 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그래서 本稿의 의의는 퇴계 도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물질만능에 따라 비인간화하는 것을 막고 존덕성의 도덕정신을 고양하는 데 있다.

本稿에서는 퇴계 도덕철학에서 인간수양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론의 기본이 되는 仁說과 敬說, 修己治人을 위한 퇴계의 인간상과 도덕적 수련, 그리고 퇴계의 存養省察論과 眞知實踐論에 관해서만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II. 퇴계의 인간상과 修己의 태도

### 1. 퇴계의 인간상

퇴계는 철학, 문학, 교육, 정치 등의 영역에 걸쳐 높은 학식과 신념을 갖춘 대학자요, 철인이었다. 그는 사상과 문장력을 겸비한 위대한 도덕철학자였다. 그러나 퇴계에 있어서 道文의 비중은 도학자이지 결코 문장가가 아니다. 말하자면 그의 모든 시와 문장은 도덕철학의 한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 뿐이며 순수문학을 위한 창작은 아닌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문장은 도덕적인 삶과 그 실천을 표현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교를 부리는 문장가들의 글을 싫어했으며,

혹은 남녀의 애정을 담은 문학 따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퇴계의 도덕정신은 노래에 있어서까지 세속적인 것을 경계하고 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래와 곡조는 대부분 음란하여 말할 것이 못된다. 이에 나(퇴계)는 본래 음률을 알지도 못하지만 세속의 음악을 듣기 싫어한다.」<sup>2)</sup>고 하였다. 그의 시문은 한결같이 세속적인 부귀와 영욕을 떠나 오로지 道學에 전심전력한 心懷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인간상 가운데서도 도덕철학자요 도덕실천자로서 파악되는 퇴계의 인간상이야 말로 인간 퇴계의 참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퇴계학을 修己의 도덕론의 입장에서, 또는 인간학적 실천철학의 입장에서 구명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퇴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 도덕심 및 人道에 관한 구명은 그의 전학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학적 태도는 이론적 지식의 추구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도덕인으로서 인생좌표를 설계하여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도리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퇴계에 있어서 학교는 「道義를 중히 여기고 예의를 숭상할 줄 알며, 학행을 겸비한 군자와 선비의 기풍을 익히는 곳」<sup>3)</sup>이며,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본원이며 모범을 세우는 곳」<sup>4)</sup>으로서, 「스승은 公私의 事故 이외에는 반드시 날마다 일제히 仕進하고, 仕進하면 반드시 예를 행하며, 예가 끝나면 강의를 시작하여 날마다 常例로 삼을 것이다. 유생들은 반드시 각각 예복을 갖추어 일제히 나와서 읍을 행하고 글을 읽어서 가르침을 청한다. 일용음식에 있어서도 예의 속에 周旋하지 않음이 없어서 오직 힘써 서로 경계하고 격려하여 묵은 습관을 깨끗이 씻어버린

2) 吾東方歌曲 大低多淫哇不足言 …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退溪文集 卷43 陶山12曲跋)

3) 然猶知重道義尙禮讓 彬彬手習於士君子之風 (退溪文集 卷12 擬與豐基郡守 論書院事)

4) 學校風化之原 首善之地 而士子禮義之宗元氣之寓也 (退溪文集 卷41 雜著 論四學師生文)

다. 들어가면 부형을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서 나아가면 어른과 옷사람을 섬기는 예절에 옮긴다. 안으로는 충과 信을 주로하고 밖으로는 겸양하고 공순하며 각각 그 분수를 다하기를 생각한다.』<sup>5)</sup>고 하였다. 또, 『더구나 스승과 제자사이에는 마땅히 예의로써 서로 숭선하여 스승은 엄하고 제자는 공경하여 각각 그 도리를 다할 것이다.』<sup>6)</sup>라고 하였다. 퇴계에 있어서 교육은 오직 인간의 도덕화를 뜻하는 것으로써 교육이 곧 도덕교육이요 인간교육인 것이다. 퇴계는 후일에 도의와 예절을 숭상하는 風度가 사라져감을 몹시 안타까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제간에도 예절이 행해지지 않고 도의가 잃어져감을 개탄하여 『諭四學師生文』을 썼던 것이다.

퇴계학에서의 그 어느 영역도 도덕에 귀착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퇴계에게서 도덕교육에 관한 요소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근본 정신을 상실한 것이 되고 알맹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도덕의 화신이요, 그의 전생애는 바로 도덕적 수련과 도덕교육의 실천가였다. 퇴계학에서 도덕철학적인 요소야말로 그의 사상과 학문과 인격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인간의 사상과 도덕성의 형성은 출생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성장하였는가 하는 것이 전생애의 인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퇴계의 인격과 덕성을 보여주는 인간상의 한 단면을 그의 언행록에서 보면 『몸을 낮추어 物에 응하고, 검소 간결하게 살며, 자리를 비워 義를 행하고 굳셈으로써 욕심을 막았도다. 악한 것을 보면 악취를 맡는 듯하고, 착한 것을 들으면 얼굴빛을 고쳤도다. 인륜의 이름 다음과 일용의 떳떳함은 잔 것도 없고 굶은 것도 없이 두루 그 이치에

5) 師長舍公私事故外 必須逐日劑仕仕必行禮 禮畢開講日以爲常 諸生必須各具禮服 盡出行揖讀書請益 日用飲食無不周旋禮義之中惟務更相勸勵灑濯舊習 推入事父兄之心 移之爲出事長上之禮 內主忠信而外行遜悌 思以各盡其分 則向之傲狼凌忽圖悖險陂之態自然銷釋 謙恭順悌樂善好義之意油然而露風流篤厚一新刑弊 (退溪文集 卷41 雜著 諭四學師生文)

6) 況師生之間 大當以禮義相先 師生敬各盡其道 (退溪文集 卷41 雜著 諭四學師生文)

마땅하도다.』<sup>7)</sup>하고 추모하고 있다. 퇴계 평생의 인품을 잘 나타낸 것이라 여겨진다.

퇴계의 『聖學十圖』 가운데서 五圖가 직접적으로 종양성찰에 관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治者에게 인간으로서의 수양을 중시하는 修己之學을 강조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철저히 修己한 자가 治人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정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퇴계에 의하면 『크고 작은 것을 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 덮어주고 仁愛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 즉 천지의 본심이 되는 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능히 스스로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가장 신령하고 성스럽고, 밝고 어질어서 신과 인간에 조화될 사람을 더욱 친애하여 왕으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기를 것을 부탁함으로써 그 인애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sup>8)</sup>고 하였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즉 천지의 본심을 가진 인간이, 못 백성을 사랑하는 하늘의 마음을 대신하여 애민지심을 실천한다는 뜻이니, 정녕 이것이 어찌 덕치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가 아닐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퇴계의 정치철학을 집약해 보면 정치는 인륜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① 存養해서 治人하고, ② 하늘을 대신한 仁愛의 정치를 베풀 것이며, ③ 天理인 도덕심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퇴계의 인생과정은 도덕정신으로 뭉쳐진 삶 그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경우나 입지조건에서도 결코 도덕적 처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퇴계 문집 전체를 통해 볼 때 한 번의 사변적 철학을 사색함에 있어서도 聖賢之學을 지향한 도덕성과 인도의

7) 卑以應物儉以處約 虛以服義剛以制欲 見惡如臭聞善易色 人倫 之懿日用之常 無細無大咸理之當 (退溪文集 言行錄 祭文)

8) 竊謂天地之大德曰生 凡天地之間含生之類 總總林林若動若植若洪若纖 皆天所閱覆而仁愛 而況於吾民之肖象而最靈 爲天地之心者乎 然天有是心而能以自施 必就夫最靈之中 而尤眷其聖哲元良 德協于神人者爲之君 付之司牧以行其仁愛之政 既命之佑之而寵綏四方矣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확립을 주내용으로 하였고 시 한 수를 지을 때도 인생의 도리와 덕행을 생각하였으며, 한 순간의 교육에도 덕성의 숭상과 덕성의 함양을 잃지 아니하였다. 퇴계는 참으로 도덕철학자, 문인, 정치가, 교육자, 도덕인의 대가로서 두루 학문을 좋아하였으나 무엇보다도 尊德性의 실천을 고양하였으니, 그의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당대인의 덕화로 나타났다. 그의 언행은 모두 인류의 사표로써 추존되고 있음은 퇴계의 인간상이 도덕을 궁행하며 일생을 살아간 진정한 도덕인이라는 점에 귀착된다고 하겠으며, 결국 도덕을 바탕으로 한 철인을 두고 생각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퇴계의 修己의 태도

퇴계 도덕철학의 중심은 聖學이다. 성학은 성현의 도를 학습하고 실천함에 있다. 유학에서 성현이라 함은 범인이 마땅히 모범삼아야 할 국극의 도덕적 표준 인물이다. 성현지도는 범인의 사고와 행위가 지향할 최고최선의 기준이다. 퇴계의 『聖學十圖』는 곧, 이들 성현이 밝힌 도덕 법과 실천해야 할 人道를 도해한 것이데, 퇴계 평생의 대작이요 퇴계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실로 퇴계의 근본사상이 집약된 것이라 하겠다. 퇴계가 만년에 박식과 높은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聖學十圖』를 自著한 연후에 이르기를 <나의 報國함이 이에 그칠 뿐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해의 근본문제는 <思>, <學>의 二學에 있다. <思>란 성현의 마음과 가르침에 대하여 깊은 사고와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요, <學>이란 성현의 언행을 체험을 통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聖學十圖』를 통하여 퇴계 도덕철학의 근본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정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그의 修己의 태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

퇴계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인간의 立志가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이며, 大志를 가지면 大道가 열리고, 작은 뜻을 가지면 작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현의 大志를 품는 자에게는 성현의 大道가 열리게 된다. 이에 퇴계는 모름지기 만인에게 성현지도의 성취를 지향한 立志를 강조한다. 퇴계는 『마음이 영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주재하는 바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도 생각되지 않는다. 이치가 현저하고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보살피지 않으면 언제나 눈앞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다.』<sup>9)</sup> 또, 『모름지기 먼저 뜻을 세워라,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나? 노력하면 이와 같이 된다.』<sup>10)</sup>고 하였다. 그래서 범인은 뜻을 높이 세워서 성현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성현을 지향한 修己의 존재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하고자 결의하여 노력만 하면 舜과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인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만인이 그들의 立志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바탕 위에서 퇴계의 도덕철학은 출발하고 있다.

다음으로 퇴계는 완전한 학문적 방법으로 愼思(어떤 일을 삼가고 깊이 생각함)를 강조한다. 범인이 성현을 지향하는 길은 理를 궁구하여 그 도리에 따라 처신하는 일이라고 했다. 즉,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사색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愼思는 바로 學의 기본적 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야말로 성현지도를 성취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에 퇴계는 신사의 심적 태도에 대해서 『마음은 사람의 가슴 밑에 있어서 잡념이 없는 것이다. 그 이치는 지극히 현저하고 지극히 진실하다. 지극히 영묘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현저하고 진실한 이치를 구하면 마땅히 얻지 못할 것이 없다』<sup>11)</sup>고 하였다. 진실한 마음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구하면 모두 얻게 된다고 한 것이다.

퇴계는 學의 의미에 대해서 『공자께서 배우고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

9) 然而心之虛靈若無以主宰 則事當前而不思 理之顯實若無以照管 則日常接而不見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10) 先須立志 以爲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赤若是 (退溪文集 卷7 進聖學十圖筭)  
 11) 夫心具於方寸而至虛至靈 理著於圖書而至顯至實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實之理 (退溪文集 卷7 進聖學十圖筭)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와 진다고 하였으니 學이란 그 일을 습득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른다.』<sup>12)</sup>고 하였다. 이에서 보면 聖賢之學은 단순히 독서를 통하여 인간도리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삶의 교양을 넓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습득하여 실천함으로써 습관화하고 내면화하는 일이다. 따라서 퇴계학에서 <愼思>가 지적 理解에 속하는 것이라면 <學>은 실천적 태도에 치중하는 것이 된다. 이에 퇴계는 『대체로 聖門의 學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얻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그 미묘한 것에 통달할 수 있다. 그 일을 습득하지 못하면 위태로워져서 불안한 까닭에 반드시 일을 배워 그 실상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밝히고 서로 유익하다』<sup>13)</sup>고 하였다. 그런데 서양의 學은 <愛知>의 바탕 위에 그 목적을 진리탐구에 둔 까닭으로 지식체계의 확립에 있었다. 東洋古來의 유학에서의 學은 人道를 알고 人道를 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도덕적 실천경향이 강하다 하겠다. 특히 퇴계학에서의 <學>의 의미는 인간의 學이요, 사람됨을 배우는 所以의 學인 것이며, 人道를 실천하는 學인 까닭으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한 학문이다. 퇴계학에서의 學의 목적은 人道를 바로 알고 이를 밝히는 일이며, 인륜을 밝히고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래서 學의 의미는 지행합일, 지덕합일의 兩義를 갖는다. 다만 진리를 진리로서 인식하려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써 할 것을 강조하는 까닭으로 學의 귀착점은 修己의 도덕실천에 있다고 하겠다.

퇴계는 聖賢之道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수련, 곧 수기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드시 삼가고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두어야 하며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이치를 궁리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더욱 공경할 것이다.

12) 存子曰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學也者習其事而眞踐履之謂也(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13) 蓋聖門之學不求諸心 則昏而無得故 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危而不安故 必學以踐其實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은미한 곳과 혼자 있는 곳에서 성찰함이 더욱 정밀하여, 어느 한 그림을 두고 생각할 적에는 마땅히 이 그림에만 마음을 오로지 해서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어떠한 일을 습득할 적에는 마땅히 이 일에 전념하여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sup>14)</sup>고 했다. 말하자면 성심과 온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성실과 공경을 다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 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처음에는 혹 부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불편을 면치 못하더라도 힘써서 참된 것을 많이 쌓고 오래 힘써 나가면 자연히 마음과 理가 서로 물배듯하여 언제 알았는지 이해되고 통달될 것이다. 따라서 일과 익히는 것이 서로 이루어져 점점 순탄하고 편하게 행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sup>15)</sup>고 하였다. 말하자면 참되는 것을 추구하여 전심전력하면 성현의 도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덕행이 聖學之道에 도달할 뿐 아니라 天人一體의 묘리와, 人道가 天道에 달하는 묘리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 인간만사의 근원은 도덕인데 도덕은 도덕심에 바탕하며, 인간의 도덕심은 생활환경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말하자면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환경이 그 各人의 도덕심의 형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큰 것이다. 이에 퇴계는 도덕적인 수련을 해나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덕적인 환경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덕한 환경에서 부도덕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악에 빠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도덕적인 환경의 조성으로 도덕심을 일깨우는 방법의 강구를 역설하고 있다.

14) 其爲之之法 必也存此心於濟莊靜一之中 窮此理於學問思辨之際不睹 不聞之前 所以戒懼者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愈精愈密 就一圖而思則當專 一於此圖 而如不知有此圖 就一事而習則當專 一於此事 而如不知有他事 朝焉夕焉而有常 今日明日而相續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15) 其初猶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至於積眞之多用力之久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與事相熟而漸見其坦泰安履(退溪文集 進聖學十圖)

접촉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용생활품에 이르기까지 전환경을 도덕심을 고양하는 내용으로 분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도덕심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며, 학문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그래서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도덕심의 발휘와 그 실천은 환경여하에 의하여 갈라지므로 언제나 인간된 까닭위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도덕적 환경으로 정화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먼저 자기의 도덕적 수련과 도덕성의 형성을 만사의 선행적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도덕심을 다하면 뜻이 곧 성실해질 것이요, 뜻이 성실하면 바로 修身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사회에의 봉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 III. 퇴계의 仁說과 敬說

#### 1. 퇴계의 仁說

인간이 어떠한 심정을 가질 때 仁人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유학에서의 仁의 뜻은 무엇인가? 中庸에 『어진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sup>16)</sup>고 하였고, 맹자는 『仁은 人心이다』<sup>17)</sup>라고 하였다. 仁은 人人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禮道實踐의 심정을 가질 때 인간다운 仁人이라 하겠다. 인간의 이러한 심정은 仁人이 되는 요건의 하나이다. 공자는 『仁은 愛人이다』<sup>18)</sup>라고 하여 타인을 사랑할 때 仁人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愛人之情은 타인을 관용하는 恕情이다. 또, 공자는 『자기를 누르고 예로 돌아감이 仁이다』<sup>19)</sup>라고 하

16) 仁者人也 (中庸)

17) 仁者人心也 (孟子 告子上)

18) 子曰 愛人 (論語 顏淵)

19) 子曰 克己復禮爲仁 (論語 顏淵)

여 仁의 달성은 극기복례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기극복과 예의 실천을 도덕적 자아실현의 요체로 본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禮人에서 이기적 非人으로 전락한 不仁人은 仁을 위장하고 명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不仁의 非人은 『위선에 살면서도 스스로 의아하게 여기거나 반성하지 않고』<sup>20)</sup> 자기가 위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공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서로 경애하는 것, 그것이 仁의 덕을 완성해가는 근본이다.』<sup>21)</sup>라고 하여 효가 仁을 성취하는 바탕이었다고 하며 이 바탕 위에서 모든 도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공자의 仁은 인간을 윤리적 존재이게 하는 보편적 요소로서 인간에 내재하며 인간생활속에서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인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의 순수한 모습을 仁이라고 했다. 인간의 본성이 仁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惻隱之心』<sup>22)</sup>을 말하였는데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맹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이라는 보편적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야말로 바로 인간의 본성이 仁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퇴계는 주자설을 인용하여 『仁이란 天地之心이며 동시에 天地生物之心이니 인간은 이 仁을 얻어서 心으로 삼았다』<sup>23)</sup>라고 말했다. 퇴계는 仁이 인간심성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다. 요컨대 퇴계는 仁이 천지자연의 섭리이고, 인간본성의 본질이며, 인간의 當行之路인 公道라고 하는 철학적 사색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퇴계의 仁은 <愛之理>이며 『마음의 正理이며 마음의 德』<sup>24)</sup>인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仁의 現顯인 측은지심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를 실행하면 곧, 천지만물의 섭리에 화합

20)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 (論語 顏淵)

21)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論語 學而)

22) 無惻隱之心非人也…惻隱之心仁之端也 (孟子 公孫丑上)

23) 朱子曰 仁者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仁說)

24) 仁字 極難說 仁是心之正理 須是覺這理 仁者 心之德四條說 (退溪文集 書四 答鄭子中別紙)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仁의 실천에 따른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된 까닭위에 서서 인간을 인간적이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은 보편적 가치원리인 仁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인 데서 찾는 것이다. 도덕적 존재의 궁극적 근원성은 인간행위를 규정하는 인의 가치원리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의 본연성은 仁인 것이며, 仁은 인간에게 天이 준 선천적 도덕율인 것이다. 곧, 仁을 실현하는 길이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본래적 자기소명을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이야말로 최고의 人道로서 천지와 합일할 수 있는 성인의 길이라고 퇴계는 보았다.

퇴계는 『사람이 仁의 德으로 하는 바를 네 개 가지고 있는 바 仁義禮智인데 오직 仁만이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sup>25)</sup>고 하였다. 仁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최고가치 원리로서 인간의 心이 선천적으로 갖춘 최고의 덕성이라는 것이다. 퇴계는 <心統性情圖說>에서 인간의 心이 天理를 품어서 도덕법칙인 四德 (인의예지)을 본래적 性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感物而動時에 사단의 情이 뒤를 밝히고 악의 발단이 性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근거함을 나타내었다. 퇴계의 관점은 인의예지가 人性的의 網이며 天賦의 命이라고 한 것이다. 인간의 본래적 심성 그 자체의 선천적인 순수 자기법칙이 바로 인의예지의 도덕법으로 본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천리의 발현은 인간의 덕성에서 말하면 곧 바로 仁의 표현이다. 퇴계는 『聖學在於求人』이라고 말한다. 仁은 공자의 중심사상이므로 求人이나 行人 역시 成聖成德의 표현이다. 퇴계 도덕철학의 최고목적은 바로 求仁成聖에 있다. 그러므로 『進聖學十圖』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퇴계 도덕철학의 달성목표는 聖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聖學十圖』의 仁說에서 合天人으로써 仁體를 말한 것을 살펴보면 仁心은 天과 人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求仁은 퇴계 도덕철학의 최대최종의 목표이며 목적인 것이다. 이 求仁

25) 未發之前四德具焉 而惟仁則包乎四者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仁說)

思想은 <仁說과 西銘>중에 나타나 있다. 퇴계에 의하면 『아직 발현하기 전에 四德(仁義禮智)이 갖추어 있는데, 오직 仁만이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涵育하고 渾全하여 거느리지 않음이 없어서 이른바 生의 性이요 愛의 理이니 이것이 仁의 본체이다.』<sup>26)</sup>라고 했다. 그런데 퇴계는 『주자가 仁道를 밝혀낸 것인데 이 이상 익힐 길이 없다.』<sup>고</sup><sup>27)</sup> 한데서 보여주듯 朱子仁說의 내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진실로 이를 본받아 보존하면 모든 善의 근원과 四行의 근본이 이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이 孔門의 교육이 배우는 이로 하여금 꼭 仁을 求하는 데 쉬지 않고 힘쓰게 한다.』<sup>28)</sup>고 한데서 보여주듯이 學의 근본정신이 구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의 <西銘>에 『대개 聖學은 仁을 구하는데 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마야흐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었다는 경지를 볼 수 있다. 仁 실현의 공부는 비로소 親切有味하게 되고, 손될 수 없을 만큼 망망하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또 物을 자기로 아는 병통도 없어져서 心德이 온전할 것이다.』<sup>29)</sup>라고 했다. 퇴계의 仁의미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곧, 仁이 天人을 통관한다는 것과 天人을 통관하는 인체로써 事親하고 事天하는 『實』을 밝히려는 데 있었다. 퇴계에 있어서 德性上에서 실체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던 『仁』이다. 곧 仁體의 발현은 덕행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仁德은 인생가치의 최고 표현이요 인덕을 발현함으로써 비로소 聖賢中和의 경지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는 인간행위의 당위성과 그 근거를 논하고, 인간행위를 뜻깊게 하는 당위의 근거로서 仁이 純粹至善의 가치라고 보았다. 퇴계에 의하면 모든 인간존재의 근원적 본질은 仁인 것이며, 仁人者의 모습이 인간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26) 惟仁則包乎四孝是以涵育渾全無所不統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仁說)

27) 發明仁道無復餘蘊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仁說)

28) 誠能體而存之則衆善之源 白行之本 莫不在是 此孔門所以必使學者汲汲於求仁也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仁說)

29) 蓋聖學在於求仁 須深體此意 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 眞實如此處 爲仁之功 始親切有味 免於莽蕩無交涉之患 又無認物爲己之病 而心德全矣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面銘)

말하자면 仁이 인간의 순수지선의 가치원리인 것이다.

## 2. 퇴계의 敬說

유학에 나타난 <敬>의 의미를 살펴보자. 『주역』에 『敬으로서 안을 바르게 하고 義로서 밖을 범도있게 한다. 敬과 義가 확립되면 외롭지 않다.』<sup>30)</sup>고 했는데 敬의 내적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또, 『시경』에 敬의 모습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여 조심함이 마치 깊은 못가에 있는 것과 같고 마치 얽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sup>31)</sup>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敬이란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 한다든가, 조심조심 삼가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敬은 일반적인 행동에서나 윗사람을 대하는 데서나 또는 일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일반적 행동규범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많은 도덕규범이 敬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敬은 德과 禮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덕과 예의 근본임을 左傳에 『敬은 德이 쌓임으로 능히 敬하면 반드시 德이 있다.』<sup>32)</sup>고 하였다. 논어에서 『일을 함에는 조심스럽게 한다.』<sup>33)</sup>에서 보듯이 『敬』은 對事的 범도로서 戒愼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맹자는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를 지키는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제나 사랑을 받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는다.』<sup>34)</sup> 또 『군자는 인과 예로써 존심한다.』<sup>35)</sup>고 하였다. 敬은 대인적 사회윤리규범으로서 仁과 함께 보편적 도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결국 예의 근본은 敬이며, 예와 인은 존심의 요체이며, 存心の 원초는 敬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宋代에 와서 성리학에 있어서의 性은 곧 理이고 인간에 있어

30)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 而德不孤 (周易 上經)

31) 戰戰兢兢 如履薄冰 (詩經 小雅 小旻)

32) 敬 德之聚也 能敬 必有德 (左傳 僖公三十)

33) 居處恭 執事敬 (論語 子路)

34)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 (孟子 離婁下)

35)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孟子 離婁下)

서의 理는 곧 仁義禮智의 근원으로 도덕적 본성이다. 따라서 敬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자각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程伊川은 『敬이란 오로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거짓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것이다.』<sup>36)</sup>라고 하였다. 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敬을 집중하는 것이요, 敬을 집중한다는 것이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하나가 아니면 둘 셋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한 가지 일에 매인다면 다른 일이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主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sup>37)</sup>고 하였다. 또, 정이천은 『主一한즉 이미 東도 아니고 西도 아니다. 이런즉 곧, 中이요, 이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이런즉 곧, 內이랴 이렇게 존재한즉 자연히 천리는 밝아진다.』<sup>38)</sup>고 하였다. 말하자면 一은 곧 中이요 內다. 中에 맞고 內에 모으면 天理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또 『聖인은 敬으로써 修己한다.』<sup>39)</sup>고 하였고, 『敬을 主로 해서 存養한다.』<sup>40)</sup>고 하였으며, 『敬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sup>41)</sup>고 하였다. 敬은 덕성의 함양뿐만 아니라 공리와 학문의 요체가 되니 결국 程門에서의 敬은 철학적 의미와 存心修己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철학적인 면에 기울고 있다.

퇴계의 철학적 사색의 최대과제는 인간이 인간된 까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삶의 실현이 가치있는가에 있었다. 퇴계에 의하면 학문을 하는 최고목적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퇴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도덕철학적 사색과 그 실천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그는 修己爲學의 보람을 도덕적 자기완성에서 찾는 새로운 학문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 도덕적 자기완성을 가능케

36)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主一者 無適之 (二程全書 卷16 遺書)

37) 主心者 主敬也 主敬者 主一也 不一則二三矣 苟繫心於一事 則他事無自入 況於主敬乎 (二程全書 卷40 二先生粹言)

38) 主一則既不之東 又不之西 如是 則只定中 既不之此 如是 則只是內 存此 則自然天理明 (二程全書 卷16 遺書)

39) 聖人修己以敬 (二程全書 卷7 遺書)

40) 主敬存養 (性理大全 卷47 學5)

41) 持敬 今此心惺惺 (性理大全 卷47 學5)



하는 도덕행위의 원리는 무엇인가? 퇴계는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최고의 당위원리로써 <敬>을 말한다. <敬>은 퇴계의 도덕철학을 관통하는 도덕 원리다.

그러면 퇴계 도덕철학에서 敬의 내용은 무엇인가? 敬은 인간의 행위로 하여금 도덕적이 되도록 규제하는 실천적 제약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일 수 있는 근거를 인간의 心情에서 찾고 『대저 마음이라는 것은 一身의 主宰요, 敬은 一心의 主宰』라고 하였으며<sup>42)</sup> 또 『敬으로 근본을 삼고, 經義를 궁구해서 知를 이룩하고, 자신에 돌이켜 구하며 반성하고, 참됨을 실천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에 心法을 묘하게 하고 道學을 전하는데 있어서의 요건이다.』<sup>43)</sup>라고 하였다. <敬>이 인간의 心을 주재할 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가치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窮理致知가 가능하며 반성실천하여 천리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퇴계에 있어서 인간만사의 근원은 도덕인데 이 도덕은 敬에서 始終한다.

퇴계는 『小學이 敬에 의하지 않고는 시초가 될 수 없음을 알 것이요, <소학>이 이에 의하여서 시초가 됨을 알면, <대학>이 이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일관하여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개 이 마음이 서 있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구명하고, 지식을 명확히 하여 사물의 이치를 다하면, 이것은 이른바 덕성을 높이고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그 몸을 닦으면, 이것은 이른바 먼저 그 큰 것을 세워 작은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집을 정돈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에까지 미치면, 이것은 이른바 몸을 닦아서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공순함을 독실히 하여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루라도 敬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敬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학의 처음과 마침이 되는 요결

42) 蓋心者一身之主宰而敬又一心之主宰也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心學圖說)

43) 敬以爲本 而窮理以致知 反躬以踐實 此及妙心法而傳道學之要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한 것이 아니겠는가.』<sup>44)</sup>라고 하였다. 퇴계의 도덕철학에서의 참다운 관심은 형이상학적 사변에 있지 않고 실천적이며, 일상적인 도덕생활의 문제였다. 그 도덕생활의 시종은 敬에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경의 의미를 주자설에 입각하여 4개 조목을 말하였다. 즉, 『① <主一無適;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고>, ② <整齊嚴肅; 몸가짐을 다스려 바르고 엄숙히 하며>, ③ <常惺惺; 항상 밝게 깨닫고 있어 정신이 또렷하게 하며>, ④ <心收斂不容一物; 마음을 거두어 단 하나의 잡념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5)</sup> 이 4개 조목이 주장하는 바의 의미는 모두 같은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경은 통일된 마음의 주재이고 만사의 근본이다. 이상의 4개 조목 중에서 ①, ③, ④항은 주관의 내심을 다스리는 규정이라면 ②항은 외모의 몸가짐에 대한 규제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외모를 바르게 하는 것이 내심을 끈게 하는 所以이며, 내심을 끈게하는 것이 외모를 바르게 하는 소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끈, 몸가짐을 정제하는 것은 내심이 主一하게 되는 소이이며, 내심을 주일하는 것은 몸가짐이 정제되는 소이라는 것이다.

퇴계의 수기적 가치론은 바로 유학상에 나타난 성현을 모범에 따라 <天·天命·天理·天道>에 합치하는 인간본성의 계발에 있다. 이러한 근본정신을 집약하여 총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성학십도』라 하겠다. 이 『성학십도』에 시종관통하는 근간의 사상은 敬說이다. 퇴계의 敬은 성현 지학의 목적인 求仁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문제로서, 心이 갖추어야 할 원리인 동시에 仁을 체인체득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의 원리가 된다. 따

44) 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 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 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 可以一以貫之而無疑矣 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乎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大學經)

45) 或曰 敬 若何以用力耶 朱子曰 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 嘗以整齊嚴肅言之 門人謝氏之說 則有所謂常惺惺 法者焉 尹氏之說 則有其心收斂不容一物者焉云云 敬者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大學經)

라서 경의 도덕적 원리는 성현지학의 목표로까지 발전하였다. 퇴계는 聖學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居敬과 窮理라는 두 근본을 세웠다. 거경과 궁리는 마치 수레의 양륜과 같이 어느 한 쪽을 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퇴계의 경설에서 거경(持敬)의 의미는 어떠한가? 인간이 본래 갖는 순수한 본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퇴계는 敬자의 뜻에 대하여 『의관을 정제하는 것, 또 생각을 한결같이 하는 것, 어떤 일이나 그렇게 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sup>46)</sup>고 하였다. 그리고 『動과 靜을 아울러 지키고 안과 밖을 같이 갖추기 위해서는 정자가 말한 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사려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정제엄숙하게 하며, 속이지 않고, 慢心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제일이니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sup>47)</sup>고 하였다. 퇴계의 敬工夫의 첫걸음은 <정제엄숙>인데 外를 바르게 함으로써 內를 곧게 한다는 관점에서 外의 쪽을 강조하였는데 無形無影의 心本然을 잘 실현하는 일은 행위의 직접적 실천대상이 되는 일상생활상의 예도를 지키는 일로부터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接物處事의 일상생활의 예도로서 외양을 규제하는 것이야 말로 心中之理를 존양성찰하는 제일단계의 방법이란 말이다. 쉽게 풀이하면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고 일어나는 매사가 도덕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은 평범하고도 쉬운 일을 어긋나지 않겠끔 실행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거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물 속에 있으면서 경과 사물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말도 모름지기 공경스럽게 하고, 행동도 모름지기 공경스럽게 하고, 앉아 있을 때도 모름지기 경건을 지켜야 한다. 경각이라도 공경을 떠나면 안된다.』<sup>48)</sup> 퇴계는 이러한 경의 태

46) 弘適在座問敬字旨 曰正衣冠曰一思慮 從事於斯賢聖可做 (退溪 言行錄 祭文 李德弘)

47) 因云動靜兼舉表裏俱該者 莫如程子所謂正衣冠 一思慮 莊整齊肅 不欺不慢之訓 其可不佩服乎 (退溪 言行錄 卷1 論特敬)

도는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심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며, 또 배우고 익힌다 해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거듭되는 실천을 통해서 생활화·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보다 경을 지향한 도덕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어린 시절에 <소학>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진실된 자기가 현현된다고 했다. 언제나 起居動作을 삼가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거경이다. 특히 퇴계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외모를 정제 엄숙하게 하는 것이 心の 본성을 수양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퇴계는 경이야말로 학문수양의 출발점이며 대근본이라고 하여 공리보다 거경을 중시했다.

퇴계학에서의 공리라 함은 추상적·관념적으로 空理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물에 집중하여 그 도리법칙을 엄밀히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는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천리를 궁구하는 것에 한층 중점을 두었다. 퇴계는 그 理를 궁구하는 경우도 일상생활의 平實明白한 데서 부터 착수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말하자면 전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그 우주적인 연관을 통찰하고 자득해야 함의 지향인 것이다. 따라서 독서공리라 해도 성현의 고전을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마음과 생활의 절실한 문제로서 고인의 사상을 미루어 체험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도덕심을 순화하고 인격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공리함에 있어서까지 결코 어떤 객관적 사물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섭취하기 위한 추상적인 이론의 탐구로서가 아니라 주로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는 도덕적 각성을 방편으로 하여 인간의 본심을 간취하는 안목을 길러 천리와 천도 그대로의 인간형성을 위해서 궁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퇴계는 거경공리아 말로 爲學의 第一義라고 보았다.

그러면 거경의 도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이 인간의 심을 주재하며

48) 居敬則常存於事物之中 今此敬與事物 皆不相違 言也須敬 動也須敬 坐也須敬 頃刻去他不得 (退溪 言行錄 卷1 論特敬)

외양을 주재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퇴계는 『경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겸하고, 동과 정을 일관하며, 마음과 행동을 합일하고, 드러난 곳과 은미한 곳을 한결같이 하는 道이다』<sup>49)</sup>라고 하였다. 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직접 인간의지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心이 敬을 가지면 인간의 도덕적 심정이 천리에 귀착한다는 말이다. 경함으로써만이 인간의 본연지성인 천리가 밝아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성현지학의 목적이 求仁에 있다면 구인의 실현은 거경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경하는 것은 무사욕하고, 삶의 뜻이 밝고 온화하며, 활개치는 활력의 소이며, 愛의 근원에 다다르기 위해 구인하는 功이 된다. 이처럼 그 경의 내실이 그 본심을 지키게 하고, 경 공부를 통해서 기질에 떨어진 본성을 그것의 본원인 인으로까지 고양, 복귀시키는 이른바 復性의 효과를 갖게 한다.

#### IV. 퇴계의 인간수양론

##### 1. 퇴계의 존양성찰론

퇴계에 의하면 인간은 천리와 인욕을 겸하고, 그 性·情을 통솔하는 것은 마음인데 성이 발현하여 정이 되는 즈음이 곧 한 마음의 幾微요 많은 변화의 요긴한 때인지라 선악은 여기에서 파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퇴계는 『서경』의 『人心은 危하고 道心은 微하니, 오로지 精一하여 其中을 잡아라』<sup>50)</sup>는 말을 인용하여 『배우는 사람은 진실로 경을 가지는데, 마음을 한 곳으로 하여 천리와 인욕의 분별에 어둡지 않아야 한다. 이에 더욱 삼가서 아직 발현되지 아니할 적에 존양하고, 공부가 깊고 이미 감정으로 발현된 뒤에 반성하고, 관찰하는 습성에 익숙하여 참

49) 特敬者又所以兼思學貫動靜 合內外一顯微之道也 (退溪文集 卷7 進聖學十圖筭)

50)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書經 大禹謨)

되게 참고 오래 힘써서 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학의 심법을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에서 얻을 것이다.<sup>51)</sup>라고 하였다. 특히 인간선악의 분기점인 발현하는 심성을 체인성찰할 필요성을 권장하고 있다.

퇴계사상의 핵심은 존재론보다는 인성론에 인성론보다는 존양론에 收藏되어 있다고 일본 유학자들이 평설하고 있다. 일본 유학의 퇴계학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돈독히 존송되고 있는 퇴계사상은 경을 주축으로 한 존양성찰론의 측면에서였다고 생각된다. 阿部吉雄은 『이퇴계가 왜 일본에서만 이처럼 높이 평가되었는가. 江戸時代 초기부터 일본 학자로부터 존신을 받았고 이후의 학자 중에서도 특히 山崎派나 大塚派와 같이 인간탐구, 인간수양을 중히 여기는 철학적 실천적인 학파에게 각별히 존신을 받은 것이다.<sup>52)</sup> 그리고 그는 『이퇴계 사상의 大本은 마음을 외계로 돌리기 보다는 우선 마음을 내계로 돌려 自省과 省察과 體察을 쌓아 가면서 항상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존엄한, 그러면서도 다사로운 생명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주의 생명력에 연결됨을 자각하며, 이것을 존속하고 함양하는 것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인간정신의 존엄성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생명을 자각하고 존양하는 것을 第一義로 하고 있다.<sup>53)</sup>』고 하였다. 요컨대 일본 주자학은 이퇴계, 나아가서는 주자학의 요체를 함양하는 것을 주로 한 존덕성의 도학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 이퇴계 존신의 內實은 어디까지나 거경을 통한 존양·성찰의 마음 공부에 대한 심취에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퇴계학에서 존양성찰을 통한 마음 공부는 곧 수기지학이요, 수기지학이란 다음 아

51) 要之兼理氣統性情者也心 而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 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執中之聖學 存禮應用之心法 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退溪文集 進聖學十圖 心統性情圖說)

52) 阿部吉雄 (編), 『日本刻版 李退溪 全集』, 서울 : 退溪學研究院, 1983. p.5.

53) 上掲書, p.5.

닌 인을 구해서 복성하는 공부인 것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아 가는 공부이다. 수기지학에서의 복성함이란 자기의 인생에 대한 求仁이요, 타인에 대한 존덕성이며, 사회적 공동생활에서의 愛之理의 회복을 가리킨 말이다.

퇴계학에서 <존양·성찰>의 논의에 관한 실제적 의미를 살펴보자. 퇴계가 말한 『未發存養 已發省察』<sup>54)</sup>에서 보면 <존양>이라는 것은 본심을 상실하지 않고 그 선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나 惺惺하게 자각하는 상태인 것이다. 말하자면 견문하기 전에 삼가고 두려워 하기를 더욱 엄하고 성실하게 하여 천명(본심)의 性을 잃지 않도록 그 선성을 保持하는 일이다. 성찰이란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한 마음의 낱새와 한 생각이 발하는 으스스하고 호젓한 곳을 살피는 일이다. 흔히 잘 생각한다든 말이지만 思慮와는 다르며, 내 마음을 돌이켜 보고 스스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戒愼하고, 그 들리지 않는 곳에 慄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찰이란 행위의 결과를 보고 心作用의 선악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가 행위의 功利를 버리고 순수한 동기의 성찰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지순한 도덕심에서 행위하는 것을 도덕성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요컨대 퇴계학에서의 <존양성찰>의 의미는 <存本心하고 養本性하는> 것이다. 인간이 행동의 실천에 앞서서 먼저 본심을 유지하고 본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행동을 실천하고 나서는 바로 이 본심(본성)이 그대로 발로되었는가를 반성체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을 맑게 보존하여 기를 뿐이고, 강습이나 응접할 때에 비로소 의리를 생각하고 헤아려야 한다』<sup>55)</sup>고 했다. 퇴계에 의하면 仁存義行의 心에 도달하자면 主敬工夫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방법인 존양이란 靜態중에 이 마음을 존하는 것이고, 성찰이란 心發이후에 표현되는 바가 천리냐 아니면 인육이나에 대해서 판별

54) 未發而存養之功深 已發而省察之習熟 (同上)

55) 無事時存養 惺惺而已 到講習應接時 方思量義理 (退溪文集 書二答李叔獻 別紙)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涵天理가 存養事요, 인육을 끊음이 省察事인 것이다. 한 사람의 작위가 此心の 發아님이 없으므로 心이 發하기 전에 이 천리가 存하면 심발이후는 바로 이 천리의 발휘이고, 발한 뒤에 만약 과불급이 있으면 인육이 생겨나므로 반드시 천리나 인육이나를 성찰하여 그것이 인육일진대 인육으로부터 복귀하여 범사가 理에 합하게 한다는 것이다. 곧, 心意識未發의 때에는 천리의 本眞을 존양하고 心意識發勃의 때에는 천리의 本眞을 성찰한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이른바 본심 혹은 본성이란 다름 아닌 원시유학의 <仁 즉 誠>이며 정주학파의 <天>理 즉 <天>道 혹은 본연의 성 내지 천지의 性-풀어 말하면 <성실의 극치>, 즉 愛의 근원(愛之理)이다.』<sup>56)</sup> 이러한 함축을 가진 <존양성찰>은 인간본성의 條理인 성실의 극치요 愛의 근원에 이르는 방편의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퇴계의 존양성찰론이란 천리인 인간의 본성(본심)을 자각하고 견지하여 인육을 막고, 자기를 인간의 참모습인 愛의 근원으로까지 복귀시키자는 인간성 회복의 學이다. 이러한 본래적 인간성의 保持와 함양, 그리고 회복이라는 뜻에서 인간수양론이라 하겠다. 퇴계학에서의 <존양성찰>의 목표는 성현지도를 지향한 삶의 요청에 따라 본연지성의 단서인 사단의 마음을 <擴而充之>하면 마침내 天地之性인 인간본성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귀를 통해서 성현지도를 실천하고, 성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성현으로 되는 것이 도덕적 이상이라 하겠다.

퇴계는 <존양>의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스스로 정돈되어 있고 각성상태에 있어서 아직 발현되지 않을 때에도 혼미하지 않고, 이미 발현했을 때에도 방종하지 않는다.』<sup>57)</sup>고 설명하고, 또 『존양과 성찰을 대치해서 말할 때는 動과 靜으로 나누어 두가지 일로 다루었으나 다만 함양만을 말할 때는 동과 정을 겸하여 말한 데가 많다.』<sup>58)</sup>고 하였다. 함

56) 全斗河, 『李退溪 哲學』, 서울 : 國民大學校 出版部, 1987, p.493.

57) 持守之要 大抵只是要得此心常自整頓惺惺了了 卽未發時不昏昧已發時不放縱耳 (退溪全集上 朱子書節要 卷14 答項平父(世安))



양공부에서는 존양(靜)과 察識공부가 성찰(動)로 일관한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존양>의 방법을 종합해 보면 우선 외양을 엄숙히 정돈함으로써 내심이 단속되어 영묘한 본심이 발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몹시 두려워하고, 언행을 삼가는 마음을 견지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가짐을 고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매사에 全精魂과 全精力을 집중투입함으로써 진정한 본심이 발현되고 발휘되도록 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仁心과 人道에 합치되어 있는 心境을 언제나 持守하여, 이러한 삶을 유지하고 실현시키는 일인 것이다.

## 2. 퇴계의 眞知實踐論

퇴계의 도덕철학에서 <眞知實踐>에 관한 이론은 그 가치를 드러내는 중심이다.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序에 이미 <從事於眞知實踐>을 말하였거니와 그 도덕철학의 중심은 인간수양론이며, 또 이의 중핵은 진지실천론이다. 『인간은 진지실천을 통해서만 진리와 인도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sup>59)</sup> 또, 『대개 진지와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만 없어도 아니 되는 것이니 사람의 두 다리가 서로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sup>60)</sup>고 하여 진지와 역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知行互進>한다는 것이다. 우선 퇴계가 학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논어의 『배우고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워진다』<sup>61)</sup>고 한 말을 인용하여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습득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른다』<sup>62)</sup>고 하였다. 또, 『대개 聖門의 학은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면

58) 若言存養 以對省察 則分動靜爲兩段事 若只言涵養 則兼動靜說處多矣  
(退溪文集 書2 答李叔獻 問目中庸)

59) 後之人雖欲據此而眞知實踐乎道 殆亦難矣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60) 抑眞知與實踐 如車兩輪闕一不可 如人兩脚相待互進故 (退溪文集 卷6 戊辰六疏)

61)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어두워져서 얻지 못하는 까닭에 반드시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그 미묘한 것에 통달한다. 그 일을 습득하지 못하면 위태로워져서 불안한 까닭에 반드시 일을 배워서 그 실상대로 실행해야 한다. 이리하여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밝히고 서로 유익하다』<sup>63)</sup>고 한 것이다. 여기서 學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실천을 이르는 것이며, 思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實踐知를 말하는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 知는 단순히 추상적인 知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體驗體察을 통한 실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일은 실천에서 체험해야 비로소 참으로 아는 것이 된다』<sup>64)</sup> 또, 『그 옳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 아는 바를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옳다고 한 것은 선하다는 것과 같으며 배운다고 한 것은 행한다는 것과 같다』<sup>65)</sup>고 하였다.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진지를 얻는 방법으로, 思라는 것은 『이것을 마음에 구하여 체험해서 얻어지는 것』<sup>66)</sup>이며 또, 『능히 마음에 實驗하고 그 이치를 밝게 분별하여 선악의 기미와 의리·시비의 판단에 정밀하지 아니함이 없고 조금도 착오가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곧 이른바 危微의 까닭과 精一의 방법이 참으로 이와 같음을 알아 의심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sup>67)</sup>라고 하였다. 퇴계는 실천의 방법으로 心意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마음은 天君이 되고 뜻은 그 마음의 발동이다. 먼저 그 발동하는 바를 성실하게 하면 한 성실로써 죽히 만가지 거짓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천군을 바로 잡으면 인체의 모든 기관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행동하는 바가 성실하지 않음이 없

62) 學也者習其事而眞踐履之謂也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63) 蓋聖門之學不求諸心 則昏而無得故 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則危而不安故 必學以踐其實 思與學交相發而互相益也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

64) 窮理而驗於踐履 始爲眞知 主敬而能無二三 方爲實得 (退溪文集 書二 答李叔獻)

65) 學其可者 此因其所知而身履之也 可猶善也 學猶行也 (退溪文集 自者錄 答李叔獻別紙)

66) 思者何也 求諸心而有驗有得之謂之也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67) 能驗於心而明辨其理 欲善惡之幾 義利是非之判 無不研精無少差謬則 所謂危微之故精一之法 可以眞知其如此而無疑矣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을 것이다』<sup>68)</sup>고 하였다. 그렇다면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퇴계는 『誠意는 반드시 조그마한 기미를 살펴서 털끝만큼이라도 부실함이 없는 것이고, 정심은 반드시 一動一靜을 살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올바르게 못함이 없는 것이다.』<sup>69)</sup>라고 하였다. 誠意正心이란 결국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의 기미를 성찰하는 것이다. 곧 인간의 심은 도덕적(의지적) 생활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一朝에 놀랍도록 의혹이 석연히 가시게 되고 시원하게 진리에 관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體와 用이 한 근원으로 되고 顯과 微의 사이가 없는 것이 참으로 그러함을 알게 되어 危微한데 미혹되지 않고 精一하는데 현혹됨이 없이 중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다.』<sup>70)</sup>라고 하였다. 이 경지의 知는 <體用一源, 顯微無間>의 경지의 知로서 이 知는 덕성의 知이다. 인간의 심의 내부에서 행해지는 이 덕성의 지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실천은 자연히 덕성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 덕성의 실천이 이루어지고서 비로소 덕행이란 말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생활에서 덕행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비로소 成聖의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덕의 본원을 아는 것은 천리와 인도를 밝히는 데 있고, 인간이 덕성의 소재를 알고자 함은 심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심은 이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심에서 사단을 <擴而充之>하여 실현시키고, 칠정을 밝혀 바르게 한다. 곧 도심을 창도하고 인심을 절제하여, 이를 실천하는 데서만 비로소 덕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진적, 체인체험적인 방법은 지와 행, 곧 공리와 역행의 호진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지는 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實踐知(眞

68) 心爲天君而意其發也 以誠其所發則 一誠足以消萬僞 以正其天君則百體從令 而所踐無非實矣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69) 誠意必審於幾微 而無一毫之不實 正心必察於動靜 而無一事之不正 (同上)

70) 一朝不覺其有酒然融釋 豁然貫通處 則始知所謂體用一源 顯微無間者 眞是其然而不迷於危微 不眩於精一而中可執 此之謂眞知也 (退溪文集 卷6 戊辰六條疏)

知)요, 행은 실천지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곧 진지의 실천은 덕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 V. 結 語

퇴계는 형이상학적 사변보다 인간탐구, 인륜의 공리, 인간의 도리를 정초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그는 유학의 근본정신인 수기치인과 사덕오륜의 도를 공리치지하고 수기체득하여 실천성취한 도덕실천가였다. 퇴계에 의하면 우주원리와 인생도리도 공리공론이 아니라 일상적 인륜의 원칙에 相卽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수기의 방법으로서 心意를 중시하고 존심을 치인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심에 성공한다면 치인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고 본 것이다.

퇴계 실천도덕철학에서의 본의는 현실적인 인간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본연지성의 發인 사단을 <확이충지>하여 모든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요구한다. 곧, 존양성찰의 始動은 사단을 확충해서 인간본성에 있는 인·의·예·지로 회복하려는 의지에로 나타남인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인간된 까닭에 확이충지에의 의지, 聖賢人이 되려는 마음, 그리고 존양성찰을 통한 수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성현인이 되려는 삶의 자세로 본연지성의 단서인 사단지심을 <확이충지>하면 마침내 천지지성인 인간본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퇴계는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心意識未發의 때에는 천리의 本眞을 존양하고, 심의식 발발의 때에는 천리의 본진을 성찰해야 하며, 또 존양성찰이라는 심의 동정은 <敬>에 의해서 관통되는 것이라고 했다. 퇴계는 『외경함이 일상생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서 중화를 극치로 하여 천지만물의 位育에 참여하는 공에 이를 수 있으며, 덕행이 뿔뿔한

인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서 천과 인이 합일하는 묘리를 얻을 수 있다.』<sup>71)</sup>고 했다. 곧, 경공부가 성현지도를 이루는 시종의 소이라고 본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경을 통한 마음 공부는 곧 수기지학이요, 수기지학이란 다름 아닌 인을 구해서 복성하는 공부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공부인 것이다. 퇴계의 실천도덕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의 참된 의미는 사회공동생활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愛의 원리를 가리킨 말이다. 따라서 <존양성찰>의 목표는 인간의 본연지성으로 복귀함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퇴계의 교학정신이 인륜의 도를 체인하여 실천궁행함에 있고, 仁存義行의 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경공부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이 존양성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실천궁행에 역점을 두고 知는 行을 통하여 얻어지는 실천지요, 행은 실천지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

71) 畏敬不離乎日用 而中和位育之功可致 德行不外乎彝倫 而天人合一之妙斯得矣 (退溪文集 進聖學十圖筭)